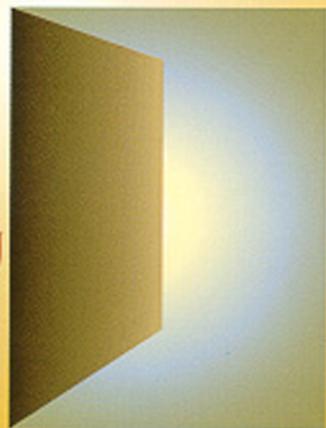


외국인투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 자료는 일반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바로잡고, 외국인투자의 이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외국기업의 국내산업지배 및 해외매각의 험값시비 쟁점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영국의 외국인투자유치 성공 사례를 통해서 일반국민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집필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성봉 부연구위원

동국대학교 김관호 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신희 연구원

차례

I . 외국인투자자와 한국경제 위기극복	5
1. 외국인직접투자가 많았다면 외환위기는 있었을까?	7
2. 외국인직접투자가 경제위기극복에 기여했는가?	12
3. 외국기업의 산업지배력이 남용될 것인가?	16
4. 기업해외매각은 헐값매각, 국부유출인가?	19
II . 영국병 치유와 외국인투자	23
1. 영국병 이후의 산뜻한 영국	25
2. 도시의 몰락과 빌리 엘리오트	29
3. 외국기업의 유치와 도시의 부활	32
4. 외국인투자를 통한 영국병 치유가 시사하는 것은?	36

I

외국인투자자와 한국경제 위기극복



I . 외국인직접투자와 한국경제 위기극복

1. 외국인직접투자가 많았다면 외환위기는 있었을까?
2. 외국인직접투자가 경제위기극복에 기여했는가?
3. 외국기업의 산업지배력이 남용될 것인가?
4. 기업해외매각은 헐값매각, 국부유출인가?

1

외국인직접투자가 많았다면 외환위기는 있었을까?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 나라가 1997년 외환위기로 IMF 구제금융에 의존해야 했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대외채무와 외환보유고간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지난 1995년 외환위기를 겪은 멕시코의 경우 대외 단기부채가 280억 달러에 달한 반면 외환보유액은 60억 달러에 불과했다. 1997년 우리나라 역시 661억 달러에 달하는 단기부채를 지고 있었던 데 반해, 당시 외환보유액은 겨우 204억 달러였다.

이러한 불균형과 함께 지적된 원인으로 국제자본의 역류현상이 있다. 1994년에서 1996년 사이에 자본시장을 개방한 한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5개국에는 모두 2,200억 달러의 자본이 유입되었다. 그러나 1997년 환율상승 등 아시아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하면서 외국인투자자와 외채부담이 높은 기업이 외화매입을 강화하면서 순식간에 1천억 달러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외환위기 이전 국내에 도입되었던 외국자본은 대부분이 포트폴리오 투자였는데, 국내외 경제사정이 악화되자 외국은행을 포함한 포트폴리오 투자자들의 투자자금 회수가 위기를 가중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외환위기의 원인에 대한 간략한 검토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한국기업이 과도한 차입에 의존한 경

영을 하지 않고 또한 한국경제가 자본시장개방 이후 외국인의 포트폴리오 투자와 함께 직접투자를 보다 많이 유치했었다더라면, 것처럼 심각한 외환위기가 닥쳤을까하는 것이다.

외국인직접투자는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외채부담 없이 국제자본을 안정적으로 도입하고 외국의 선진 경영기술을 통해 자국의 경영·경제 효율화를 앞당기는 기회를 제공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주식, 채권에 대한 배당이나 이자소득을 목적으로 하고, 이동가능성이 높은 포트폴리오 투자와 그 성격이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전 자본시장개방과 함께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던 외국자본은 대부분이 포트폴리오 투자였다. 이들 포트폴리오투자는 국내외 경제사정이 악화되자 신속하게 투자자금을 회수했던 것이다.

직접투자와 포트폴리오 투자의 차이

외국인투자는 크게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투자(portfolio investment)와 경영권을 확보하는 직접투자(direct investment)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 투자는 배당 내지 이자소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데 비해, 직접투자는 기업의 경영과 관리에의 참여를 통한 이윤증대를 일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즉, 직접투자는 단순히 자본이익을 얻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을 완전히 소유하거나 현지국의 개인, 기업 또는 정부와 자본금의 일정비율로 합작투자하여 경영권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의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려한다는 점에서 포트폴리오 투자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 국가는 포트폴리오 투자와의 구분을 위해 외국인투자자 1인이 의결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식 또는 지분의 10% 이상을 취득할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로 간주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서 보다 자유화된 조치들을 취하고, 외국인직접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했다면 상황은 많이 달랐을 것이다. 왜냐하면 외국인직접투자는 포트폴리오투자와 달리 투자자유치국 현지 경제체제와 보다 밀접하게 결합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안정적인 투자형태이기 때문이다. 외국인직접투자는 다국적기업의 경우 장기적인 전략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기적인 여건변화로 사업체를 신속하게 정리하여 철수하지 않는다. 또한 투자한 나라에 외환위기 등 경제위기가 발생할 경우 다국적기업의 모기업이 현지 자회사를 지원함으로써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데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시아의 외환위기로 한국과 마찬가지로 경제위기를 겪은 말레이시아는 당시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외환유동성 부족 현상이 심하지 않았다. 말레이시아가 외환유동성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자본통제정책이었지만, 말레이시아가 전형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주도의 성장을 추진해온 국가였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1997년 당시 외국인직접투자가 각국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세계평균 5.6%)을 살펴보면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1.3% 및 11%로 극단적 차이를 보여주었다. IMF 긴급지원을 받은 한국이나 태국에 비해서 양호한 외환사정이 말레이시아로 하여금 IMF로 가지 않고 독자적인 외환위기 극복정책을 취하게 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외환위기 4개국의 외환유동성 현황(1996~1997)

	말레이시아		한 국		태 국		인도네시아	
	1996	1997	1996	1997	1996	1997	1996	1997
외채(A)	37,364	42,178	144,112	157,658	121,890	108,161	106,632	112,065
단기외채(B)	13,105	16,199	108,889	66,126	49,357	42,429	37,613	38,417
외환보유고(C)	27,009	20,788	34,037	20,368	37,731	26,179	18,251	15,587
단기외채비율 (B/A)	0.35	0.40	0.76	0.42	0.40	0.39	0.35	0.34
외환보유고대비 외채(A/C)	1.38	2.03	4.23	7.74	3.23	4.13	5.84	7.18
외환보유고대비 단기외채(B/C)	0.49	0.80	3.19	3.25	1.31	1.62	2.06	2.46

자료 : IMF, International Finance Statistics, 1999

외환위기 및 IMF 구제금융의 발생확률(1997년)

위기발생확률	한 국	인도네시아	태 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멕시코
외환위기	0.195	0.065	0.093	0.064	0.100	0.121
IMF구제금융	0.168	0.050	0.071	0.065	0.097	0.119
단기외채/총외채	58.9	24.8	40.7	41	26.6	23.1
총외채/GNP	0.26	0.534	0.504	0.392	0.649	0.332
1인당 실질GDP 성장률(%)	5.9	6.1	5.2	5.3	5	-2.1
외환보유고 /수입액(months)	2.65	6.373	6.27	4.09	3.52	4.1
재정수지/GDP(%)	-1.1	0	1.5	-0.5	-0.1	-1.7
순외국인직접투자 /총외채(%)	-1.36	3.24	1.26	11.13	1.99	4.15
국내신용증가율(%)	19.3	22.7	14.03	12	40.2	11.48
경상수지/GDP(%)	-4.7	-4	-8.5	-7.4	-4.4	-6.42

자료 : 박대근 · 이창용, “한국의 외환위기: 전개과정과 교훈”, 1998, Kim J.-D, and Hwang S.-I., The Rol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s Economic Development, KIEP, 199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난극복의 지름길』, 1998, 49면. (재인용).

또한 외환위기 발생확률과 외국인직접투자의 관계를 다룬 실증분석연구 결과들은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해 외환위기 발생확률이 낮아질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7년에 외환위기를 겪은 아시아 국가들과 1995년에 경험한 멕시코에 대해 외환위기 및 IMF 구제금융의 발생확률을 예측한 결과는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의 1997년도 외환위기 및 IMF 구제금융의 발생확률은 20%에 가까운 것으로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나 1994년도 멕시코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이 당시 총외채 중 단기외채의 비중이 다른 국가들 보다 높고, 외국인직접투자의 순유입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훨씬 저조한 데 기인한 것임을 보여준다. 이들 연구들은 만일 다른 변수의 값이 불변인 상황에서 한국의 총외채 대비 순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의 비율이 말레이시아와 비슷한 수준인 10%대 이었다면, 한국의 외환위기 및 IMF 구제금융의 발생확률은 20%에서 6~7% 대로 감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역사에서 가정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한다. 외환위기 발생 이전에 외국인직접투자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더라면, 외환위기가 발생하지도 않았거나, 발생했더라도 그 피해가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심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해도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유가 어디 있든 우리는 이미 심각한 경제위기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쓰라린 경험은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향후 다시는 외환위기를 겪지 않아야 한다는 점과, 이를 위해서 외국인직접투자의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외국인직접투자가 경제위기극복에 기여했는가?

우리는 IMF 관리체제라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회생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했었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이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큰 기여를 했었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외환확보, 생산 및 고용증대, 수출증대 및 무역수지개선, 기술력 확충, 구조조정의 촉진이라는 5가지의 경제적 효과¹⁾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했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일석오조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자.

첫째, 외국인직접투자는 안정적인 외환확보를 가능하게 하여 우리의 경제위기 극복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외채나 단기성 투자에 비해서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외환위기이후 증대된 외국인직접투자는 안정적 외환확보에 기여했다. 외환부족이 가장 심각했던 1998년에 외국인직접투자는 54억 달러 증가하여 1998년 외환보유액 증가분 316억 달러의 17%를 기여하였고, 1999년에 외국인직접투자는 93억 달러로 1999년 외환보유액 증가분 220억달러의 42%를 기여했다.

둘째, 외국인직접투자는 생산과 고용을 증대시킴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했다. 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1997년부터 1999년까지 3년간 제조업분야의 외국인투자기업의 생산은 20조원, 고용은 51,300명이

1) 산업연구원, 외국인 직접투자의 일석오조 효과분석, 2001.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은 같은 기간 국내 제조업 생산증가에 44%를 기여했다. 이러한 생산 및 고용증대효과와 더불어 외국인투자는 같은 기간에 나타난 제조업 분야의 급격한 고용감소를 상당히 억제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외국인직접투자는 수출증대 및 무역수지 개선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했다. 1999도 제조업분야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은 213억 달러, 수입은 165억 달러로 43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보였다. 이러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 및 무역흑자는 전체수출 및 무역수지에서 각각 15%,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이만큼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석유정제업

제조업분야 외국인투자기업의 생산기여도(1997~1999년)

(단위: 조원, %)

연도	국내제조업	외국인투자기업	비중
1997	434.9	44.0	10.1%
1998	425.0	48.2	11.3%
1999	480.2	64.0	13.3%
1997~99년 증가분	45.3	20.0	44.0%

자료: 산업연구원, 외국인 직접투자의 일석오조 효과분석, 2001, 32면.

제조업분야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기여도(1997~1999년)

(단위: 천명, %)

연도	국내제조업	외투기업	비중
1997	2,697.6	149.0	5.5%
1998	2,323.9	136.2	5.9%
1999	2,507.7	200.3	8.0%
1997~99년 증가분	-189.8	51.3	-

자료: 산업연구원, 외국인 직접투자의 일석오조 효과분석, 2001, 33면.

과 같이 원유수입액 비중이 큰 업종을 제외할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무역수지 흑자에 약 60억 달러 정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외국인직접투자는 선진기술의 도입, 연구개발(R&D)활동, 국내 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등을 통한 국내산업의 기술력 확충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해서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였다.

다섯째, 외국인직접투자는 국내 기업 및 산업의 구조조정을 급속하게 진행시키는 촉매역할을 하였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다국적기업의 일원으로서 한국에서 자신들의 글로벌 경영을 보여주고, 특히 한국 사업

제조업분야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입 실적(1999년)

(단위: 백만 달러)

	수출	수입	무역수지
국내전체	143,685	119,752	23,933
외투기업 전체(추정)	21,364	16,517	4,848
(석유정제업 제외시)	19,575	13,623	5,953
외투기업 비중	14.9%	13.8%	20.3%

자료: 산업연구원, 『외국인 직접투자의 일석오조 효과분석』, 2001, 35면.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기업과의 경쟁실태

(단위: 개사, %)

업종	전무	약간	보통	심한편	매우심한편	무응답	총합계
제조업	31	58	73	95	21	9	305
(비중)	(10.2)	(19.0)	(23.9)	(31.1)	(6.9)	(3.0)	(100.0)
전기및전자	7	18	21	24	2	4	76
기 계	5	7	12	15	2	6	47
운송용기기	2	14	6	6	4	2	34

자료: 산업연구원, 『외국인 직접투자의 일석오조 효과분석』, 2001, 41면.

파트너에 대해서 투명경영을 요구하는 등 한국기업의 경영선진화에 직접, 간접적으로 크게 기여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자들은 재벌 및 대기업들의 사업부문 매각 및 합작투자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였다. 이처럼 외국인직접투자의 증대를 통해서 산업전반에 경쟁이 제고되는 등 산업구조조정도 크게 기여하였다. 산업연구원이 305개의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한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국내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는 기업은 약 10%에 불과하며 60% 정도는 경쟁이 심하거나 상당한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쟁촉진 및 산업구조조정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석오조의 효과를 통해서 외국인직접투자는 우리 경제의 위기극복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외국인직접투자의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되어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대표적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외국인투자의 증대로 외국기업의 국내산업지배력이 증대되고, 이들이 이를 남용할 경우 그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직접투자형태로 이루어진 많은 해외매각이 헐값매각이고 따라서 국부유출을 일으켰다는 주장이다. 이들 문제들은 바로 이어서 다룬다.

3

외국기업의 산업지배력이 남용될 것인가?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전면적인 자유화와 함께 외국인에 의한 국내기업 인수가 급속하게 증대하였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결과 종묘, 위생용지, 신문용지, 일차전지, 은행, 맥주 등의 일부 업종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처럼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대하자,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국내 시장이 외국기업에 의해서 잠식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배력 남용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명확한 증거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외국인투자에 의한 시장지배력 강화문제를 지적하는 경우 흔히 제시되는 것이 한 업종 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숫자가 얼마이고, 이들의 시장점유율을 모두 합칠 경우 시장에서 차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비중이 얼마라는 점이다. 이러한 자료만 제시되는 경우 해당 업종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90%를 넘기도 한다. 언뜻 보기에는 우리 시장이 외국기업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되었고, 그 결과로 외국기업들이 마음대로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한 업종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몇 개이고 이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업종내에서 얼마나 되는가 하는 점은 전혀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 문제는 일개 업종에서 사업활동을 전개하는 기업들이 모두다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하더라도 이들 기업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가 여부이다. 이들이 공정한 경쟁을 하는 경우는 문제가 크지 않다. 그러나 만약 이들이 담합 등을 통해서 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피해가 국내 소비자 및 연관된 국내 업체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외국인투자기업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이러한 불공정 행위 문제점은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업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통해서 대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은 국내기업의 지배력 남용에 대한 경우와 동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외국인투자기업이든 국내기업이든 차별없이 공정거래법을 적용한다면, 설령 외국인투자기업의 산업내 지위가 강화되더라도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비중이 높은 중요업, 제지업(위생용지와 신문용지), 은행업을 대상으로 외국인투자가 시장의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기업의 기업결합에 따른 분석한 결과, 아직까지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배력 남용 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²⁾ 전통적으로 한국시장은 몇 개 기업에 의해서 시장이 지배되는지의 척도가 되는 시장집중도가 높고 재벌기업의 시장지배력이 강하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M&A형 외국인투자의 활성화 방안, 2000, 12면 이하.

다는 점에서 외국기업의 신규진출은 경쟁관점에서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며, 오히려 더욱더 장려될 필요가 있다.



4

기업해외매각은 헐값매각, 국부유출인가?

외국인투자에 대한 전면적인 개방과 함께 외국인이 한국기업을 자유롭게 인수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기업을 외국에 지나치게 싼값에 팔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많은 외국 기업들이 국내 기업을 인수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상당수의 해외매각에서 국내기업의 장부상 자산금액에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매각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장부상 자산금액과 매각금액과의 차이만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우리 기업을 헐값으로 해외에 매각했고, 그 결과 국부가 유출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기업의 해외매각의 다양한 측면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는 단선적인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과도한 차입에 의존해 왔던 많은 한국기업들이 외환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생사의 기로에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IMF가 제시한 정책중 하나가 높은 국내이자율을 통한 외환수급의 안정이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수익성은 높지 않으면서 과도한 부채를 안고 있었던 기업들은 이자와 원금지급 부담으로 도산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일부 기업의 경우 제품력 또는 기술력 등은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차입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러한 많은 기업들의 도산위기 속에서 기업매각은 기업의 생존차원에서 추진

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일반적으로 기업매각과정에서 장부상의 자산금액보다 매각금액이 낮게 정해지는 현상은 다음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다. 즉, 기업이 갑자기 자금이 필요하여 급하게 기업매각을 추진하거나 또는 그 기업이 부실기업이어서 인수하는 기업이 부실을 정리하고 회생시켜야 하는 부담을 지는 경우에 장부상의 자산가액을 다 받지 못하고 매각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기업의 해외매각은 이 두 가지 경우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당시 대부분의 국내 기업 또는 기업집단은 유동성의 위기와 부실기업의 위기를 모두 직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기업별로 유동성 위기측면과 부실기업의 위기측면에서 각각 정도의 차이는 있었을 것이다.

유동성 위기측면이 강했던 기업의 경우 불가피한 매각과정에서 아쉬움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부채의존도만 낮추어 기업을 경영해 왔었다면 기업의 일부사업부문 또는 기업을 급하게 매각하지 않았어도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시에 기업매물이 시장에 쏟아져 나온 데 따른 매각가격 하락측면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외환위기라는 대외적인 경제여건의 악화에 따른 측면도 상당부분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국내 기업들이 차입에 의존한 성장일변도의 확장경영이 아닌 차입규모를 낮추는 내실경영을 해왔더라면 회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국내 기업도 책임회피는 어려울 것이다. 유동성 위기 측면에서 이루어진 해외매각은 상당부분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외환위기 당기 유동성 측면의 위기 때문에 일부 사업부문 또는 계열사를 해외매각 했던 기업의 관계자

들은 낮은 매각가격에 따른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해외매각이 기업의 생존과 기업구조조정의 추진에 절대적인 역할을 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당시 외국인투자가 없었다면 기업이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회사 또는 그룹 전체가 부도가 났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당시 외국인투자자마저 없었다면 남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유동성 위기측면에서 추진한 해외매각은 적지 않은 아쉬움이 있었지만, 부실기업에 대한 해외매각에 대해서는 헐값매각, 국부유출로 보기 어렵다. 부실기업은 그 기업의 자산을 다 매각해도 기업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청산하더라도 금융기관, 채권자 등 제3, 제4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기업을 말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대규모 부실기업으로, 이 경우에는 단순히 부실기업 자체가 소멸되는 것에 피해가 한정되지 않고, 국민경제 전반에 큰 피해를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심각하다.

외환위기 이후 상당한 부실기업이 도태되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많은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이를 회생시키기 위해 해외 매각한 경우도 있었다. 부실기업의 경우 제 값을 받고 파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백화점에서 물건을 살 때,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상당한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듯이, 부실기업의 매각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당시 국내 부실기업의 경우 경영투명성마저 확보되지 않고 심각한 노사갈등이 잠재되어 있어, 외국인투자자가 해당 기업을 인수한 이후에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 것인지를 계산하기조차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부상 자산가액과 매각가격은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부실기업을 계속 떠 안아서 생길 수 있는 추가적인 자금소요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매각하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퇴출시키거나 해외로 매각하지 않으면 급격한 국부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며 있다. 특히 부실기업에 대한 처리를 지체할 경우 해당 기업이 해외에서 덤핑판매를 함으로써 막대한 국부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실기업은 제품의 경쟁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품을 해외에 덤핑 판매할 수밖에 없게 되며, 이로 인해 국내 경쟁기업까지 도산시킴으로써 부실기업을 확대 재생산하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부실기업을 해외에 매각하는 것보다 부실기업을 국내에 계속 유지시킴으로써 유출되는 국부가 오히려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헐값으로라도 해외에 매각하면 국부유출은 한번에 끝날 수 있지만, 부실기업을 계속 유지시키면 지속적인 국부유출과 국민세금의 지속적인 투입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II

영국병 치유와
외국인투자



II. 영국병 치유와 외국인투자

1. 영국병 이후의 산뜻한 영국
2. 도시의 몰락과 빌리 엘리오트
3. 외국기업의 유치와 도시의 부활
4. 외국인투자를 통한 영국병 치유가 시사하는 것은?

1

영국병 이후의 산뜻한 영국

뉴욕 타임즈의 칼럼니스트인 토마스 프리드만은 그의 유명한 저서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초판에서 세계 각국을 하나의 기업으로 본다면 어떤 나라 주식을 사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리고 그는 그가 사고 싶은 주식의 하나로서 영국을 들고 있다. 1997년 영국 정부는 오랜 기간 동안 사용했던 영국의 로고, ‘통치하라, 영국이여 (Rule Britannica)’를 ‘산뜻한 영국 (Cool Britannica)’이라는 새로운 로고로 바꾸었다. 이는 영국의 변모된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은 지금 서유럽 국가중 비교적 낮은 실업율에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모범적인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한 20년전 쯤으라면 아마도 프리드만은 가장 팔고 싶은 주식으로 주저 없이 영국을 들지 않았을까 한다.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세계 유일의 선진국’ 등으로 지칭되던 영국은 2차대전 이후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약 40여년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추락하는 모습만 보여주었던 것이다.

1950년대 및 60년대 영국의 연평균 성장률은 2.8% 선으로 여타 선진국들의 평균 성장률 5~6%선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1차 오일쇼크 이후 영국경제는 성장부진과 함께 물가불안 및 경상수지 적자라는 삼중고에 직면하면서 최악의 침체에 빠지게 된다. 1974~79년중 연평균 실질

성장률 1.3% – 특히 1974-75년은 연속 마이너스 성장 –, 소비자물가상승율은 연평균 15.7%, 동기간중 1978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대폭적 경상수지 적자 기록, 이것이 바로 70년대 영국경제의 모습인 것이다. 19세기 중반에 전세계 공산품 수출액의 40%를 차지했던 영국산 공산품의 비중은 70년대 후반에는 10% 미만으로 추락하며, 1976년 가을에는 국가부도 상황에 직면하고 그해 12월 IMF에 39억달러의 자금지원 까지 받는다.

우리는 이러한 영국경제의 모습을 이른바 ‘영국병(English Disease)’ 이라 부른다. 그리고 지금까지 밝혀진 이 병의 병인으로서 ‘강력한 노조와 노동쟁의의 빈발’ ‘노동당 정부의 준사회주의적 정책’ ‘경제정책의 일관성 결여’ 등 사회구조적 요인들이 거론되고 있다.

오랜 전통을 지닌 영국의 노동조합은 조직력을 꾸준히 확대하여 산업과 정치계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으며, 노조에 유리한 관련 법제³⁾와 영국정부의 전통적인 비개입주의 등을 배경으로 여타 선진국에 비해 노동쟁의가 빈발하였다. 1970-74년중 근로자 1천인당 파업일수는 585일로 서독의 49일, 프랑스의 166일 등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1945년에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취약자보호 등 공리주의적 복지개념에 입각하여 포괄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였으며, 석탄(1947년), 전력 및 가스(1948년), 교통운송, 철강(1949년) 등의 주요 기간산업을 국유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개혁조치는 당초 의도했던 만큼의 분배구조를 개선하지 못한 채 시장기능을 저해하고 기업의 투자욕과 노동자의

3) 예컨대 1974년의 노동법은 ‘클로즈드 숍(closed-shop)제’와 노조원에 대한 면책규정을 도입하였다.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의 역기능을 나타냈다. 정부 재정부담의 급증, 자발적 실업의 증가, 공기업의 관료주의적 경영으로 효율성 저하, 경쟁 제한으로 민간경제 부문의 활력 상실 등도 나타났다.

이념과 지지기반이 크게 다른 보수, 노동당의 양당체제하에서 집권정당 교체시 마다 정책기조가 뒤바뀜으로서 정부정책의 장기적 일관성도 부족했다. 양당의 경제정책은 특히 산업정책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어 제조업 발전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였는데, 철강산업의 경우 1954년에 민영화되었다가 1965년에 다시 국유화되는 극심한 정책혼란을 보였다.

이러한 영국병을 치유하는 의사의 역할을 자처하며 등장한 사람이 이른바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마가렛 대처 수상이었다. 1979년 5월에 집권한 대처 보수당 내각은 영국경제의 구조적 장애를 제거하고 산업경쟁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른바 ‘대처리즘’에 입각한 경제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시장기능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을 축소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였다. 사회복지 지출 삭감, 국영기업 보조금 축소, 공무원 감원 등을 통해 재정지출을 삭감하며, 영국항공(British Airways), 영국통신(British Telecom), 영국석유(British Petroleum) 등 20여 업체를 민영화하였다. 또한 공급확대효과를 위한 감세정책을 실시하며, 외환관리의 철폐, 증권거래소 개혁(Big Bang), 부동산중개업 자유화 등 경쟁촉진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불법 노동쟁의의 제재를 강화하며 노동조합의 지위를 격하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단행하였는데, 1982년 고용법 개정, 1984년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합법파업의 범위를 적시하였고, 클로즈드 쉘(closed-shop)제를 폐지하고 노조원의 면책범위를 축소시켰다.

이러한 구조조정을 바탕으로 영국경제는 1980년대 들어 성장세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다. 1982년부터 86년간 성장률은 연평균 3% 대로 높아졌고, 1970년대의 물가고가 해소되고 경상수지도 흑자로 반전되었다. 1980~86년중 영국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과연 대처리즘이 영국경제의 회복에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대처리즘의 효과에 대해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2

도시의 몰락과 빌리 엘리오트

대처 수상의 개혁조치는 결코 순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대처의 개혁에 이해가 반하는 집단들은 강력히 저항하였고, 당시 사회적 갈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1984년에 시작된 전국광산노조 파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석탄산업은 산업혁명을 잉태시키고 영국을 세계 최대의 공업국으로 이끈 가장 중요한 산업의 하나였다. 1950년대와 60년대는 영국 광부들에게는 가장 행복했던 시기로 기억될만 하다. 전통적으로 노동당의 가장 강력한 지지 세력이었던 이들은 노동당 정부하에서 사회복지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계층이었다. 교육, 의료, 주택 제공 등 높은 수준의 다양한 복지혜택이 제공되었으며, 주당 24 파운드라는 최고 수준의 임금이 주어졌다.

그러나 영국의 석탄산업은 2차대전 이후부터 이미 경쟁력을 서서히 상실해 가고 있었다. 그러다 1970년대 들어 중동으로부터 저렴한 석유가 도입되면서, 고임금과 잦은 파업 상태에 있던 영국의 석탄 산업은 급격히 경쟁력을 잃게 되었다. 그러나 광부들의 실업을 우려하여 노동당정부는 수십억 파운드의 재정 지출을 통해 적자를 메꾸어 나갔을 뿐이다.

대처 수상은 경쟁력 없는 석탄산업을 민영화를 통해 과감히 정리하려고 했고, 정부의 지원에 안주해 왔던 영국의 광부들에게 이는 절대절명의 도전으로 다가온 것이다. 1984년, 전국광산노조는 총파업을 단행한다. 전국적으로 21만여명이 참여한 이 파업은 1년여 동안 지속되었고, 대처 정부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강력하게 대처했다. 파업기간 동안 광부들에게는 생계비조로 주당 5파운드만이 지원되었고,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광부들의 삶은 어려워져만 갔던 것이다. 그해 겨울 광부들은 경험하지 못한 추운 겨울을 겪어야만 했다. 그러면서 광산을 떠나는 광부들이 계속 늘어갔다.

지난 겨울 상영된 영국 영화 ‘빌리 엘리오트 (Billy Elliot)’ 는 바로 이러한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이다. 올해 아카데미상 최우수 영화상 후보에 올랐던 이 영화는 당시 상황을 경험한 영국인들에게는 진정으로 가슴에 와닿는 영화가 아닐까 한다.

영국 북부지방 작은 탄광촌에 살고 있는 11살 소년 빌리, 광부인 형과 아버지는 파업상태이다. 할아버지의 오래된 권투 장갑을 끼고 체육관을 찾은 빌리, 체육관의 한 귀퉁이에서 실시되는 발레수업을 목격하고 발레의 평화로운 분위기와 아름다운 음악에 순식간에 매료되어 버린다. 발레 선생의 권유로 빌리는 간단한 레슨을 받고, 천재성을 발견한 선생은 빌리에게 전혀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와 형은 빌리를 말린다. 힘든 노동과 시위로 살아온 이들에게 있어 남자가 발레를 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성탄절 우연히 체육관을 찾은 아버지는 빌리의 춤을 직접 목격하고, 발

레만이 빌리가 탄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빌리가 왕립발레스쿨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토록 열성적이었던 파업의 대열에서 이탈, 탄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다시 곡괭이를 잡는 아버지, 그리고 이를 말리는 형의 모습....

이 영화의 각본을 쓴 리 홀 (Lee Hall)은 다음과 같이 예기하고 있다. “당시 파업의 실패에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한 광부 공동체내의 다양한 알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당시 상황을 쓰고자 했다.” “이것은 소수의 민중들에게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한 계급 전쟁이었다.... 이는 어린 시절 나에게 분노심을 남겼고 이후 나의 많은 작품에 영향을 주었다.” 당시 파업은 영국 북동부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역사적 사건이었던 것이다.

생활고를 못이긴 광부들은 속속 작업장으로 복귀하였고, 결국 1년여간 지속된 파업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리고 탄광은 민영화되었다. 그러나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영국 석탄산업의 몰락은 피할 수 없었고, 1만여명의 광부들은 실업자가 되었다. 광부들은 새로운 직업을 찾아, 그리고 빌리 엘리오프처럼 새로운 기회를 찾아, 광산을 떠났다.

영국 석탄산업의 중심지로 한때 영국 최대 공업도시이기도 했던 영국 북동부의 뉴캐슬, 이 도시를 사람들은 속속 탈출하였다. 도시의 몰락이었다. 이 지역 최대의 탄광도시였던 아싱톤(Easington)시 - 빌리 엘리오프의 촬영무대가 된 곳이다 - 이 곳엔 지금 오직 하나의 탄광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3

외국기업의 유치와 도시의 부활

몰락한 도시 뉴캐슬의 지금의 모습은 어떨까? 몇 년전 KBS의 일요스페셜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도시의 부활' 에서는 이 도시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적 축구 스타, 쉬어러의 모습부터 보여주고 있다.

이 지역 출신인 쉬어러가 고향을 떠난 후 10년만에 세계적인 스타가 되어 이 지역의 프로 축구팀으로 돌아온 것이다. 한때 2부 리그로 떨어졌던 이 지역 축구팀은 쉬어러가 돌아온 후 1부 리그 우승까지 넘보고 있다. 축구장에는 열광하는 관중들로 가득하다. 뉴캐슬의 쇼팽가 노섬브리아 거리에도 사람들이 넘쳐 난다. 10년만의 최대 호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1970년대 한때 문을 닫았던 타인(Tyne)극장에도 사람들이 넘쳐 난다. 돌아온 젊은이들, 활기찬 도시의 밤, 이것이 지금 뉴캐슬의 모습이다. 도시가 부활한 것이다. 한때 몰락했던 이 도시는 어떻게 부활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외국기업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서였다.

1985년 뉴캐슬 남부지역에 니산 자동차 공장을 유치한 것은 이후 이 지역의 발전 방향을 결정한 중요한 계기가 된다. 당시 니산 자동차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20여년간 이 지역 노조 지도자 역할을 한 조 밀이라는 사람이었다. 당시 노조원의 실업문제라는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는 외국기업의 유치라는 안을 내놓았고, 니산 자동차 유치를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정부에 압력을 통해 실업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탈피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었다. 지역 노조는 복수노조가 니산에 익숙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니산에 한 개의 노조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주었다. 이러한 노조의 노력은 결국 3천여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니산 자동차의 유치는 노조의 힘만으로도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지방정부, 의회, 기업가, 노조가 합심한 결과였고 그 산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북부투자개발공사(NDC)인 것이다. 발족 이후 10여년간 NDC를 이끌고 있는 존 브릿지는 이 지역 출신으로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유능한 인재였다. 그는 다른 곳에서 더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었지만, 자기 주변의 고통받는 이웃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자임했다. 그는 이곳에 외국기업을 유치하면 경제재건의 기초를 이룰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고, 그의 강력한 추진력하에서 NDC는 가장 성공적인 외국인투자 유치기구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뉴캐슬 남단 1시간 거리에 있는 윈야드에 삼성전자 공장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다양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진출 지역을 모색하고 있던 중, 이 소식을 들은 지역 유지, 존 홀은 자신의 저택, 런던 데리로 이견희 회장을 초대한다. 그리고 삼성 관계자들을 자신 소유의 축구팀 경기에 초대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는 공장 부지 25만평을 시세의 1/10에 불과한 평당 5천원에 제공한다. 거의 공짜인 셈이다. 영국 정부는 투자액의 30%를 지원하고, 고용 1인당 5천 파운드의 보조금을 제공하였다. 영국의 중앙정부가 240만 파운드의 지원금을 주는 절차는 상공부 차관이 공항에서 삼성관계자를 만나 수표 한 장 주고 사진 한

장 찍는 것이 다였다. 각종 인허가는 관련 구청 공무원들이 와서 1시간내에 다 해결해 주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처럼, 엘리자베스 여왕이 직접 윈야드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여 영국에 투자해 준 삼성에 감사를 표시한다.

이 지역이 외국기업 유치로 통해 부활하게 된 것은 노조, 기업가, 공무원, 시민단체 모두가 뜻을 모은 결과였다. 존 브릿지 NDC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NDC의 뒤에는 많은 영역의 기관들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려고 애쓴다. 누구는 땅을 내고, 누구는 공익시설, 기술훈련, 도로, 주재원의 사택, 자녀교육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NDC의 출범후 10년간 미국, 캐나다 등 북미지역 기업 140개, 일본, 한국 등 아시아 지역기업 70개, 그리고 독일, 프랑스 등 유럽기업 170개를 유치한다. 기업 유치 총 446건, 투자액 총 74억 파운드, 고용창출 63,875명이 그 실적이다. NDC 출범 10주년 기념식에서 토니 블레어 총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다양한 정치적 상황도 결과적으로 큰 상관이 되지 못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직면한 현실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이데올로기에 관계없이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하자는 신념을 모았다.”

결론으로 이 프로그램은 다음 3인의 말로 정리하고 있다.

존 밀 (노조 지도자): “내 아버지는 많은 실업 문제를 겪었다. 돈도, 희망도, 미래도 없는 생활 말이다. 나는 우리의 아이들이 그런 상황을 겪게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협력을 택했다. 역사는 다시 쓸 수 없는 것이다. 과거를 향해 갈 수 없다. 미래를 향해야만 한다.”

존 홀 (기업가): “오늘 나같은 사업가들이 변화하는 세계의 추세를 보고 지역에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리더십은 지역사람들의 갈 길과 미래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존 브릿지 (NDC 대표): “우리는 먼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한가지 비전을 가져야 했다. 그것은 이 지역으로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실현되면 우리는 이 지역의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했고 장기적인 계획이어야 했다.”

4

외국인투자를 통한 영국병 치유가 시사하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영국병이라는 고통을 겪었던 영국, 이제는 산뜻한 영국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 영국이 영국병을 치유하고 부활할 수 있었던 데에는 외국인투자의 전략적 유치에 분명히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외국기업의 유치라는 목표를 위해 모든 주체들이 단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금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투자환경이 좋은 나라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컨설팅 회사인 A.T. Kearney는 세계 1000대 기업들의 최고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의향에 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영국은 이 조사가 시작된 1998년 이후 유럽 국가중 항상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필자는 지금 쓰고 있는 글의 내용을 갖고 학생들에게 특강을 하곤 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느낀 점을 얘기해 보라고 한다. 많은 학생들이 비디오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얘기한다. 특히 이해가 다른 주체들이 외국기업의 유치를 위해 단합하는 모습에 부러움을 표시하기도 한다.

명분도 중요하다. 민족정신도 좋다. 우리 기업에 대한 애정도 좋다. 그

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이런 것들에만 얽매어 있으면 상대적으로 후퇴할 수 밖에 없다. 영국인들에게 이런 것들이 없겠는가? 한때 세계 최강의 국가로서 영국인들이 갖는 자존심은 우리 국민의 그것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높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영국인들이 머리를 숙이고 외국기업의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실리를 추구하려는 정신 때문일 것이다.

국내 외국기업의 이윤 송금을 국부유출이라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내기업의 매가가격이 낮아 헐값매각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좀더 큰 시각을 갖고 보아야 한다.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새롭게 창출하는 부를 보아야 한다. 외국기업에 인수된 국내기업의 자산 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보아야 한다. 이것은 국내에 존속하는 국부인 것이다. 경제통계에서 GNP의 개념이 사라지고 GDP의 개념이 이를 대체한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사고방식은 GNP적 사고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가 한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직면한 현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데올로기에 관계없이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하자는 신념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외국인투자의 문제는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자꾸 명분과 연결하고, 이데올로기와 연결하고, 애국심과 연결하고, 이러면 결코 단합된 모습을 보일 수 없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일할 자리를 중국인, 태국인, 인도인 등이 차지하는 모습일 것이다.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화: 02)3460-1186 FAX: 02)3460-1077
<http://www.kiep.go.kr>

경제개방바로알기 ⑥

외국인투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

2001년 12월 15일 인쇄

2001년 12월 18일 발행

발행인 이경태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전화 : 3460-1178 FAX : 3460-1144

인쇄 오름시스템(주) 전화 : 2273-7011 대표 이호열

등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本書 內容의 無斷 轉載 · 複製를 금함】

외국인투자와 한국경제 위기극복

외국인직접투자가 많았다면 외환위기는 있었을까?

외국인직접투자가 경제위기극복에 기여했는가?

외국기업의 산업지배력이 남용될 것인가?

기업해외매각은 할값매각, 국부유출인가?

영국병 치유와 외국인투자

영국병 이후의 산뜻한 영국

도시의 몰락과 빌리 엘리오트

외국기업의 유치와 도시의 부활

외국인투자를 통한 영국병 치유가 시사하는 것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7-747 서울시 서초구 영곡동 300-4

TEL: 3460-1178, 1179 FAX: 3460-1144

<http://www.kiep.go.kr>